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3호> 2019년 12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오이타현 태국 프로모션 개최



지난 11월 7~10일 태국 방콕에서 오이타현의 물산, 관광, 제조 산업을 PR하는 프로모션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일본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수는 5년 전 66만명에서 72% 증가한

113만명으로 최근에는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지방 도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곧 규슈를 여행할 예정이라는 참가자들에게 오이타현의 온천과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태국 정부 관계자, 대사관, 여행사 및 매스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오이타현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오이타 소고기, 방어, 표고버섯 등 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고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또 회장에는 오이타현의 식재료, 관광, 제조 산업을 PR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관계자와의 상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쿠니사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후시에 이어 이번 호는 쿠니사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쿠니사키에서 세계로!’ 하버드 대학생과 교류

하버드 대학생과의 교류는 쿠니사키시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사단법인 Summer in JAPAN과 쿠니사키시 관광협회의 협력으로 매년 8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으며 참가자 중에는 3회째 참가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주된 교류 내용은 신체를 움직이면서 하는 영어 게임, 영작문 연습, 발표 등입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학생들도 대학생들의 밝고 친절 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면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과의 교류회는 앞으로의 영어 교육 혁신을 목표로 영어에 대한 학습 의욕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이번 교류를 계기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니사키시 활력창생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3호> 2019년 12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히지하쿠 풋패스 이토가하마~오오가 코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히지하쿠’는 오이타현 히지정(町)의 ‘음식, 자연, 역사,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어선으로 벳푸만을 도는 크루즈 체험, 절에서 필라테스로 심신을 다스리는 체험, 계절에 맞춘 리스 만들기 등 지역 주민들이 안내하는 51개의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산과 바다의 경치 모두 즐기며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풋패스 이토가하마 해변~오오가 바닷바람과 대지의 코스’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11월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따뜻했던 어느 토요일, 이토가하마 해변에 모인 스무명의 참가자들과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준비운동까지 마치고 오늘 코스를 안내해주실 풋패스 리더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짹짹 뻗은 대나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는게 느껴졌습니다. 코스 길따라 곳곳에는 아직 활짝 피어있는 꽃들에 자연스레 고개가 올라가고 허리가 숙여집니다. 풀을 뜯어먹는 염소와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를 만나기도 하고 늦가을 노랑고푸른 아름다운 경치가 함께했습니다.

이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풋패스 리더는 주변 농작물과 지형을 소개하거나 이 마을 사람들의 성이 전부 사토라는 재미있는 설명까지 곁들이며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카보스 농장 옆을 지나가자 농장 주인이 흔쾌히 따라가도 괜찮다며 가위를 건네주십니다. 또 90살이 넘으신 할머니께서도 평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 동네에 이번에 많이 들 찾아온다고 들었다며 직접 만든 찐빵을 나눠주시며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정만큼 맛있는 찐빵을 한 입 가득 물고 이번 코스의 휴게 장소인 ‘하나노키(花の木)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여기서도 커피와 차, 고구마로 만든 오이타 향토요리인 이시가키떡을 준비해주셔서 주민분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풋패스 코스는 출발 장소였던 이토가하마 해변으로 돌아와 ‘스나하마(砂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마무리됩니다.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카레를 순식간에 비우고 코스 일정은 끝이 났지만 해변까지 안내해주신다는 풋패스 리더를 따라 모두들 바다로 따라나섰습니다. 바위 위에 홀로 서있는 소나무가 인상적인 이토가하마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즐겁게 교류하고 주민들의 따뜻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좋았다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